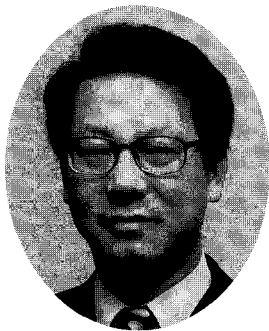


2005년 경제전망과 주류산업



심 영 섭
(산업연구원 부원장)

■ 목 차 ■

- I. 되살아나지 못하는 경기
- II. 2005년의 불확실성 요인들
- III. 2005년 경기 : 내수회복 여부가 관건
- IV. 산업별 전망 : IT 중심 내구소비재
 건조한 성장 전망
- V. 경기불황기의 주류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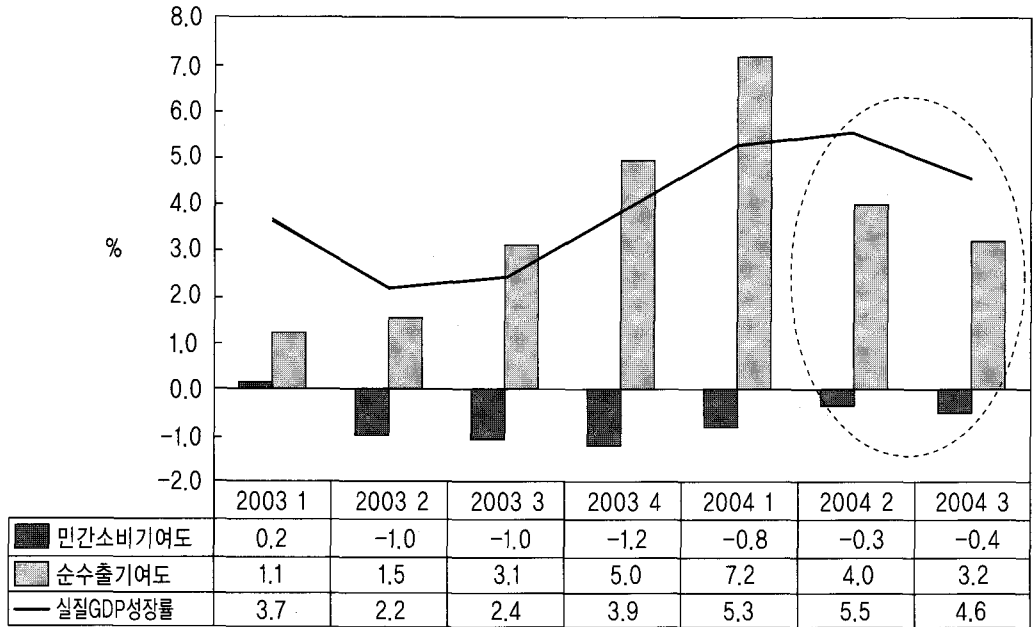
I. 되살아나지 못하는 경기

어려웠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밝아오면서 우리 경제에 희망적인 요소는 없는 지 궁금하다. 지난 해 말부터 새해 경제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온 터라 기대는 그리 크지는 않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경제예측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가 그대로 들어맞을 때보다도 어긋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제발 새해 경제는 경제전문가들이나 경제예측기관들이 비난의 화살을 맞더라도 전망치와는 좀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무엇보다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실질GDP 성장률, 경기동향지수 및 경기선행지수로 볼 때 우리 경제는 현재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국면의 하방위험(downside risk)이 증대되는 모습이다.

국민계정 상으로 보면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여전히 성장세를 잠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순수출의 기여도마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성장률 둔화가 우려된다([그림 1] 참조). 사상 최대의 호황을 보이면서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이

[그림 1] 실질GDP 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침체된 내수를 견인하지 못한 채 다시 하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내수의 자생적 회복이 성장의 관건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경기종합지수로 볼 때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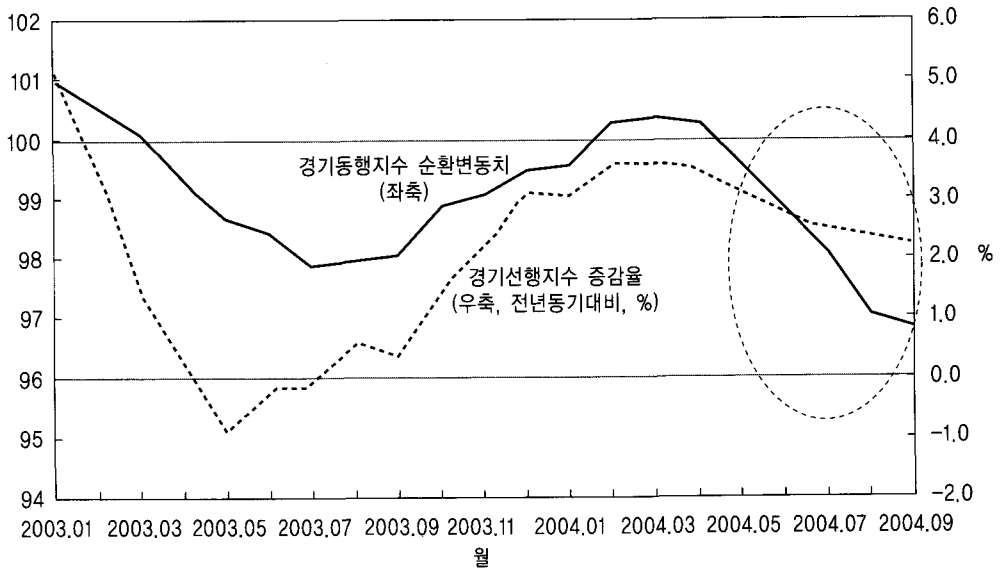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04년 3월에 정점에 도달한 후 100 이하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경기선행지수의 증가율 역시 비슷한 시기를 전후로 둔화되는 추세다. 2004년 하반기 이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주원인은 구성항목 중 수출의 신장세가 낮아진 반면, 수입의 신장세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II. 2005년의 불확실성 요인들

우리 경제의 경기상황은 지금 더블 딥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경기가 2003년 중반을 고비로 완만하게 상승곡선을 그려가며 조심스럽게 낙관론이 확산되는 듯했으나, 2004년 중반부터는 오히려 꺾이는 형국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하락반전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들 수 없다. 특히 대외환경에 노출 정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는 외부적인 여건의

[그림 2]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불리한 변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2005년도 경기를 전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영향을 미칠 불확실성 요인들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이야말로 2005년도 경기전망의 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여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새해에는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그 동안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된 수급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락세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요측면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원유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고, 공급측면에서는 산유국들이 유가의 지나친 상승 방지를 위해 생산능력 확충과 산유량 조정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같은 전망의 근거다. 2004년에 공급교란요인(러시아 유코스

사태, 미국의 허리케인 여파, 나이지리아 파업 등)으로 작용했던 시장의 불안심리도 새해에는 불식될 것으로 보이고,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유가 급등에 편승한 투기 수요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2005년 중에는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전망을 30달러대 중반 아래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는게 일반적이다.

환율의 경우에는 안정요인보다 불확실요인이 더 커 보인다. 향후 원화 환율은 최근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조정이 예상되기는 하나 상승요인보다는 하락요인이 강하여 추가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2기 미 부시행정부의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 지속으로 재정·무역수지 적자의 해소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 아시아 주요국의 통화에 대한 글로벌 달러 약세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유가 등으로 미국 경제

의 소프트웨어(patch)가 실패하고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장기화되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사회가 금리인상을 자제하게 되면 달러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금리인상에 이어 새해에 위안화 절상을 이미 예고하고 있어서 원화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금년 하반기쯤 중국 당국이 위안화의 일일 변동폭을 넓히는 형태로 절상이 이루어지고, 절상 폭은 5-10%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추세적인 환율하락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동안 원화 환율의 과도한 하락(undershooting)에 따른 반작용과 수출신장세 둔화에 따라 어느 정도 하방경직성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수준이 어느 선이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다. 2005년의 원화 환율은 상기 요인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다. 시나리오 1은 1,050원 아래에서 약한 반등을 보인 후 다시 하락하여 2005년 하반기에 1,000원대 초반까지 추락하는 경우다. 시나리오 2는 1,050원 아래에서 강한 조정을 보여 1,100원 근처까지 반등한 후 다시 하락하는 경우다. 현재의 환율하락 추세를 감안할 때 시나리오 2보다는 시나리오 1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대체로 환율이 반등한다고 하여도 1,070원을 넘기기가 어렵고, 하락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1,000을 밑도는 수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교역상대국들의 경기동향도 주요 변수다. 최근 들어 세계경제는 2003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던 강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

가 뚜렷하다. 1/4분기에 5.0%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3/4분기에는 3.9%로 낮아졌다. 미국경제만이 아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의 성장세도 점차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유로경제는 여전히 1-2%의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국경제는 여전히 9%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경기과열이 진정기미를 보이면서 연착륙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2005년 중 주요국 경제는 2004년의 성장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망기관들이 미국경제는 2004년의 4.3%에서 3.5% 내외로, 일본경제는 4.2%에서 2% 내외로, 유로경제는 2.0% 수준에서 역시 2% 내외로, 중국경제는 9.0%대에서 8%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의 바로미터인 미국 금리는 적정 수준(3-4%)까지 단계적인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미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사회가 고유가 지속 등에 따라 성장세 둔화가 예상보다 커서 소프트웨어가 어려울 경우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Ⅲ. 2005년 경기 : 내수회복 여부가 관건

물론 이같은 대외변수 외에도 다수의 대내적인 불확실성 요인들도 다수 잠복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경제와 산업활동의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작년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폭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이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2005년의 실물경제의 향방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이 얼마나 작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정부의 이른바 뉴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식됨에 따라 정책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 경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의 회복이 수출의 둔화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고유가 기초의 지속 및 IT산업 경기의 둔화로 인해 2004년에 비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원화 환율의 하락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수출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분기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가 저점을 벗어나 증가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가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는 시기가 경기국면이 반전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2005년도의 성장률은 2004년의 추정치인 4.7~4.9% 내외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전망기관들은 대체로 4% 전반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경기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 전망기관들이 많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2/4분기쯤 경기의 저점을 지나 반전의 기운을 되찾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부문별로 보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대폭 낮아지는 대신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다. 민간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기대되나 순수출의 기여도 하락을 만회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실시가 본격화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 내수성장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양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는 연중에 걸쳐 서서히 회복세가 가속화되어 체감경기는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물론 최근의 소비선행지표 움직임을 지켜보면 금년 상반기까지는 민간소비의 가시적인

〈표1〉 주요 기관의 2005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

구 분		KIET	KDI	한국은행	삼성研	LG研	한경研
GDP 성장률	2005년	4.3	4.0	4.0	3.7	3.8	4.1
	2004년	4.9	4.7	4.7	4.8	4.7	4.8
수출증가율		8.9	8.6	9.8	9.3	8.0	7.4
수입증가율		12.6	10.8	9.3	14.2	11.9	14.2
소비자물가		3.3	2.9	3.0	3.3	2.8	3.2
실업율		3.5	3.6	3.6	3.6	3.6	3.5
원/달러 환율		1,035	-	-	1,060	1,000	1,023.7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 소비침체의 한 원인인 가계의 과잉채무부담이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 위축은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2005년 하반기부터는 소비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산업연구원(KIET)은 2005년의 소비증가율을 상반기 1.9%, 하반기 3.8%, 연간 2.8%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회복의 진전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실물부문의 설비투자 환경은 2005년에도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민간소비의 회복 여부와 그 속도라 볼 수 있다. 구조적 설비투자 제약요인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데다, 환율하락, 고유가 기조나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등으로 수출둔화가 예상되어 침체된 소비 회복이 투자회복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소비가 2005년 들어 완만하나마 증가세로 전환된다면 설비투자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부진한 부동산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2004년 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의 경우에는 2004년의 경우보다 새해에는 증가율이 대폭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출은 2003년도에 20% 가까이, 2004년 들어서도 30% 가까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2005년에는 세계경기의 성장세 둔화, 중국의 건축, IT제품의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05년 상반기까지는 두 자리 수의 수출증가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겠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한 자리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2005년 전체로 보아도 두 자리 수의 예상보다는 한 자리수의 수출증가율 예상이 더 우세한 편이다. 반면에 수입은 고유가 지속, 환율절상의 효과,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 등으로 두 자리 수의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물가의 경우는 새해에도 여전히 2005년 중에는 고유가 지속 등의 비용요인과 총수요확대 등의 불안요인이 있기는 하나, 부동산 가격의 약세 지속과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의 영향으로 3% 초반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IV. 산업별 전망 : IT 중심 내구소비재 견조한 성장 전망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주력업종에서 큰 폭의 내수감소가 이루어지거나 정체를 면치 못하였다. 반면에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산업생산의 증가를 견인하였다.

자동차, 섬유 등은 전년 대비 내수가 2년 연속 1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석유화학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고, 조선, 일반기계, 철강, 가전 등의 내수증가세도 3%를 넘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다. 그러나 섬유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비교적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고,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가전, 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20%를 상회하는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철강, 석유화학, 컴퓨터 등도 최소한 6%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해에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한국 소비재상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중국 등 개도권의 높은 성장에 힘입은 한국산 기계류, 부품 및 소재의 수요확대에 기인한다. 특히, 통신기기 및 디지털가전, 컴퓨터 등 IT제품의 품질향상에 힘입어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도 한국제품에 대한 품질인정과 인지도 상승, 중국 등 개도권의 개발 특수 등으로 인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IT제조업의 경우에는 높은 수출증가율과 안정적인 내수증가세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하였다.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 IT제조업이 모두 두 자리의 생산증가율을 보였고, 통신기기의 생산증가율은 무려 30%를 상회하였다. 내수비중이 매우 낮은 조선산업은 높은 수출증가율의 영향으로 생산도 28.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자동차는 17.4%의 내수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출증가세로 6.6%의 안정적인 생산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대표적인 소재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은 내수침체, 국내 생산능력의 한계 등으로 큰 폭의 생산증가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섬유는 10% 이상의 생산감소를 겪어야만 하였다.

2005년의 산업활동은 전년도의 그것과 뚜렷하게 대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내수회복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전반기에는 가시화되기 어려워 산업성장세의 둔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작년에 금액기준으로 30% 이상 증가하여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업종의 수출증가율이 2005년에는 한 자리수의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통신기기 한 업종을 제외하면 실질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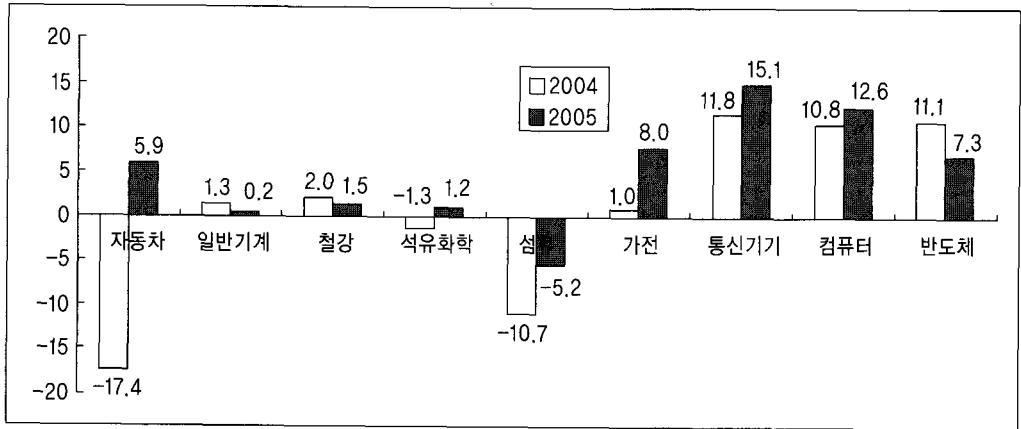
으로 전 업종이 한 자리 수 증가율 내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달러 금액기준으로도 조선, 일반기계, 석유화학, 통신기기 등만이 두 자리 수의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2003, 4년 2년 동안 매우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영향과 더불어 주요 수출대상국의 성장세 둔화, 중국경제의 긴축, 중국산업의 경쟁력 강화, 급격한 환율하락 등이 수출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던 점이 주된 요인들이다. 특히 섬유는 2005년에도 미국, EU, 캐나다 등의 쿼터 폐지 등으로 수출이 감소되었고, 제품별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철강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던 반도체수출도 일본 업체들의 본격생산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IT제조업 등은 지난 해보다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금년에도 꾸준히 수출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제품의 품질수준 향상, 국내기업 진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부품 및 설비수출 확대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내수는 자동차,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증가세 둔화를 상쇄할 정도로 크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의 경우 작년에 17% 이상 내수감소를 겪었으나, 그동안 유보되었던 잠재수요의 일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금년에는 6% 정도의 내수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등 IT 내구소비재의 내수도 제품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신제품의 출시, 위성 DMB 등 디지털방송의 본격화에

[그림 3] 주요 업종별 내수증가율 전망



주 : 실질기준임. 자동차는 완성차,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

따라 작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의 내수는 가격하락으로 금액기준으로는 소폭 증가하지만 물량기준으로는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폰, 디지털가전 등 반도체 응용분야의 국내 수요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자본재 및 소재산업인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의 내수는 국내 산업생산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에는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반면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는 이를 만회할 만큼 강하지를 못해서 주력산업의 생산증가율은 작년에 비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업종별로 보면, 새해에는 생산증가율이 전년보다 크게 낮아지기는 하지만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 IT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이 5%를 상회할 전망이고, 특히 통신기기는 15%대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컴퓨터, 가전, 반도체 등의 생산증가는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지만, 내수증가율이 비교적 높

은데 기인하며, 통신기기의 생산증가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은 현재의 수주상황과 건조일정을 감안해 볼 때 2004년보다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7% 이상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회복되지만,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어 생산증가율은 2004년보다 낮은 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소재산업 및 자본재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세 둔화, 내수부진 등으로 2005년은 2%에도 못 미치는 생산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섬유산업도 국내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V. 경기불황기의 주류산업

어느 업종이나를 막론하고 지난 2년간 불황의 터널을 거쳤다. 금년도의 전망도 결코 낙관적이지가 못하다. 심지어 IMF 고비를 넘기던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한다. 주류산업의 경우에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소비심리가 한껏 위축된 데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주류소비량이 급감하고 말았다. 그동안 불황에 강한 면모를 보였던 소주마저 판매량이 줄었다니 주류업계의 경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소비관련지표를 보면 내수업종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다. 작년 3/4분기 까지 민간소비가 6분기째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4/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크다. 민간소비가 4분기 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분명 비상한 상황을 의미한다. 마이너스에 또다시 마이너스를 겪은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6개월 후의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도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어 소비의 앞날도 기약할 수가 없다.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 자칫 경기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다.

민간소비의 내역 가운데 비내구소비재의 소

비는 내구소비재의 경우보다 그래도 비교적 나은 편이다. 소비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겪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앞으로 소비회복과 경기회복의 선순환 반전이 일어나면 주류업종과 같은 비내구소비재의 희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경기가 항상 호황을 누린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시장경제에서 경기불황은 필요악의 하나이다. 주기적으로 겪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문제는 불황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불황기를 이겨내는 노력은 때때로 기업과 산업의 보약이 되기도 한다. 마케팅과 기술개발이 불황기에 활발히 일어나는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불황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면 경쟁력은 자동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일이다. 한마디로 불황을 기회로 삼아보자는 역발상인 것이다.

최근의 소비트렌드는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일상의 생활과 국민들의 의식에서 질적인 변화가 가속화되는 데에 따른 자연스러

(표2) 소비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3년				2004년			
	1/4	2/4	3/4	4/4	1/4	2/4	3/4	4/4
민간소비	0.3	-1.8	-1.9	-2.2	-1.4	-0.7	-0.8	-
도소매판매	1.7	-1.5	-2.3	-2.0	0.1	-0.3	-0.9	-
소비재출하	-3.2	-7.6	-6.8	-6.5	-2.2	-2.7	-4.4	-
(내구소비재)	-4.8	-11.9	-15.1	-14.3	-6.3	-8.5	-8.9	-
(비내구소비재)	-2.5	-4.9	-2.7	-2.7	-0.3	0.2	-2.5	-
소비자기대지수	94.3	93.6	91.1	94.0	96.2	95.6	88.5	86.9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소비자 기대지수는 각 분기의 월 평균치

은 현상이다. 소비트렌드의 변화를 주류산업에 연결시켜보는 일도 의미가 있을 일이다.

우선 음주문화의 변화다.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문화의 확산은 좋은 품질과 격조있는 음주문화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 서린 폭음문화나 접대문화가 아니고, 여유를 찾고 정서적인 풍류를 음미하는 문화에 맞는 마케팅과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단순히 성매매방지특별법에 의한 주류판매 급감의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노력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보다는 소비자가 짜여진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을 때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주류문화 정착을 기대해 보는 일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저널리즘에서는 21세기의 소비마케팅은 문화를 파는 컬덕트(culduct=culture+product) 추세라고 규정짓기도 한다. 제품에 문화를 얹어 파는 것을 넘어서 제품이 문화를 창조하는 정도의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는 마케팅을 의미한다. 우리의 문화는 이미 韓流를 통해서 아시아 각국에서 통하듯이, 우리가 노력하면 주류문화도 역시 국내외에서 크게 어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기술이 첨단화될수록 전통있는 문화의 존재가 고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전통을 재해석하라는 말이 히트상품의 개발에 응용되기도 한다. 비단 전통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즐겨왔던 주류를 새로운 격조로 재탄생시키는 일도 필요한 일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들의 기호가 매우 빨리 변하면서 소비자의 욕구충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10인 1색이었던 소비자 특성이 10인 10색으로 바뀌었다

가 이제는 1인 10색, 더 나아가 1인 100으로 변화하는 점점 더 세분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한 어느 경영학과 교수의 지적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특성을 예측해서 제품개발과 마케팅에 나서는 일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히트하고 있는 주류제품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다. 과거에 비해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단축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각 언론사 등에서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제품들의 특성을 보면,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된다. 첫째, 제품개발과 마케팅의 초점이 양적인 사고에서 질적인 사고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량생산 대량판매에 근거한 종래의 대중마케팅과 가격경쟁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고객과 기업 모두를 위한 가치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고객과 기업의 가치가 공유될만한 경우 성공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이제는 제품개발과 마케팅에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지를 미리 예측해서, 변화될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제품을 개발해 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乙酉年 새해 아침에 주류산업과 주류문화를 논하는 일은 의미가 크다. 유(酉)는 완숙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로서 만물이 성숙한 것을 나타낼 뿐 아니라, 술 주(酒) 자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 원래 주류는 숙성을 통해서 제 맛을 내는 산물이고, 우리나라의 주류산업도 이제는 성숙단계에 들어섰다.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지만, 경기불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